

비폭력 위기중재훈련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의 인식 조사*

이근용**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요약》

이 연구는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비폭력위기중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밝히는 연구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전공, 직장, 담당하는 장애유형, 담당 장애 학생의 연령별로 분류하여 비폭력 위기중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나타난 연구결과는 장애관련종사자들은 전공과정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폭력위기중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개설 욕구를 나타내 보였다. 현재 훈련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수나 세미나 및 실습을 통해 비폭력 위기 중재 훈련을 받고 싶어 했다.

앞으로 이러한 비폭력위기중재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 훈련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표집대상을 확대하여 구체적인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비폭력 위기중재, 문제행동, 재활, 장애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폭력에서로부터 해방 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시설 등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 혹은 학교에서 장애인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장애인에 의해 시설 종사자에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이 내담자에 의해 감염 또는 상해를 입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교신저자(jutsg@naverr.com)

장애인 특히 정서 혹은 행동 장애인들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접한 교사들까지도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내담자의 폭력 사태 발생 시 시설 또는 학교 교사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자칫 잘못 하면 장애인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상처를 입게 되면 해당 장애인의 당사자의 부모는 시설이나 학교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담자와 시설 혹은 학교 종사간의 서로의 안정과 신뢰, 보호를 위해 비폭력적 위기 프로그램의 사용이 대두된다. 내담자의 돌발적인 폭력사태에 대해 내담자와 종사자가 서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위기 상황을 넘게 되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폭력 위기 중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사나 시설 종사자들에게 입사 전이나 입사 후에도 정기적으로 훈련 시켜 실제 상황에서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계 많은 국가에 지부를 두고 비폭력 위기중재(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를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세계에서 약 450만명의 복지 사업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보호, 복지, 안전을 위해 비폭력위기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시켰고 훈련 기관인 비폭력 위기 중재 연구소는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비장애인 영역에서 일반 학교까지 그 영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비폭력 위기 중재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장애인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인식수준을 밝혀 폭력으로 부터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종사자들의 보호, 복지, 안정을 위해 비폭력위기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비폭력 위기 중재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장애인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인식수준을 밝혀 폭력으로 부터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종사자들의 보호, 복지, 안정을 위해 비폭력위기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종사자의 비폭력 위기 중재훈련의 실태를 밝힌다.

둘째, 장애인종사자의 비폭력 위기 중재훈련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의 특수학교, 장애인 관련 복지관, 지역사회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설문지 180부를 배부하여 그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59부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구 대상자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	67	42.1	장애유형	정신지체	49	30.8	
	여	92	57.9		정서장애	43	27.0	
연령	20대	56	35.2		시각장애	7	4.4	
	30대	55	34.6		청각장애	25	15.7	
	40대	38	23.9		지체장애	24	15.1	
	50대이상	10	6.3		중복장애	8	5.0	
전공	특수교육	90	56.6		기타	3	1.9	
	재활관련	35	22.0		장애학생연령	7세이하	7	4.4
	사회복지	25	15.7			8-13세	46	28.9
	기타	9	5.7			14-19세	64	40.3
직장	특수학교	102	64.2	20-40세		36	22.6	
	장애인 관련복지관	54	34.0	40세이상		6	3.7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3	1.9	계		159	10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장애인의 위기중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해서 사용했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은 <표 2.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기중재의 실태에 관련된 10문항과 위기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영역	내용	문항
위기중재의 실태	(1)전공과정의 위기중재과정 유무 (2)위기중재과정이 필수과목 여부 (3)위기중재과정이 선택 이수 여부 (4)위기중재 과목이 구성 (5)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 (6)위기중재 훈련 방법 (7)위기상황 직면 빈도 (8)위기직면 적절한 반응 대처 (9)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 (10)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	10
위기중재의 필요성	(11)위기상황에서의 위기 중재훈련 효과 (12)자격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제공 필요성 (13)학부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 (14)학부 학생들에게 유익한 위기 중재과정 형식 (15)대학 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 제공방법	5
합계		15

4. 연구 절차

설문지는 200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다당성에 대한 예비설문을 하였으며, 최종 설문지는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에게 우편 발송 및 직접 배부하였으며 성의 있게 답변을 받기 위해 위기중재 관련 소책자 및 유인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2007년 6월 30일 7월 20일까지였으며, 설문지의 높은 회수율을 위해 조사 대상지를 직접방문 및 전화연락을 하였다.

설문지 180부를 발송하여 16부가 미회수 되어 회수율은 88.8%였으며, 회수된 16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최종 159부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는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의 위기 중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밝히는 연구로 수집

된 자료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전공, 직장, 담당하는 장애유형, 담당 장애학생의 연령별로 분류하여 위기중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카이검 증(X²)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유의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이 연구는 위기중재과정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관련 종사자의 위기중재훈련의 실태

1) 전공과정의 위기중재과정 유무

전공과정의 위기중재과정 유무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1>과 같다.

<표 3.1> 전공과정의 위기중재과정 유무

구 분		예	아니오	잘모르겠음	전체(%)	df	χ^2
성별	남	5(7.5)	45(67.2)	17(25.4)	67(100)	2	1.98
	여	8(8.7)	69(75.0)	15(16.3)	92(100)		
연령	20대	3(5.4)	39(69.6)	14(25.0)	56(100)	6	4.44
	30대	6(10.9)	39(70.9)	10(18.2)	55(100)		
	40대	4(10.5)	29(76.3)	5(13.2)	39(100)		
	50대이상	·	7(70.0)	3(30.0)	10(100)		
전공	특수교육	6(6.7)	67(74.4)	17(18.9)	90(100)	6	3.96
	재활관련	3(8.6)	25(71.4)	7(20.0)	35(100)		
	사회복지	2(8.0)	16(64.0)	7(28.0)	25(100)		
	기타	2(22.2)	6(66.7)	1(11.1)	9(100)		
계		13(8.2)	114(71.7)	32(20.1)	159(100)		

전공과정의 위기중재과정 유무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71.7%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8.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전공과정의 위기중재과정 유무에 대하여 남자가 67.2%, 여자가 75.0%로 아니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0대 장애관련 종사자가 76.3%, 30대의 70.9%, 20대의 69.6%가 아니오

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종사자의 74.4%, 재활전공 종사자의 71.4%,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 종사자의 64.0%가 아니오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공한 교육과정에 위기중재 과정이 성별, 연령, 전공과정에 관계없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위기중재과정의 필수과목 여부

위기중재과정의 필수과목 여부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위기중재과정의 필수과목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df	χ^2
성별	남	1(7.1)	13(92.9)	14(100)	1	2.19
	여	4(28.6)	10(71.4)	14(100)		
연령	20대	1(11.1)	8(88.9)	9(100)	2	.55
	30대	2(18.2)	9(81.8)	11(100)		
	40대	2(25.0)	6(75.0)	8(100)		
	50대이상	·	·	·		
전공	특수교육	3(20.0)	12(80.0)	15(100)	3	1.98
	재활관련	·	6(100)	6(100)		
	사회복지	1(25.0)	3(75.0)	4(100)		
	기타	1(33.3)	2(66.7)	3(100)		
계		5(17.9)	23(82.1)	28(100)		

위기중재과정의 필수과목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82.1%가 필수과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7.9%만이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필수과목 여부에 대하여 남자가 92.9%, 여자가 71.4%로 아니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대 장애관련 종사자가 88.9%, 30대의 81.8%, 40대의 75.0%가 아니오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재활전공한 종사자의 100%, 특수교육전공의 80.0%,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 종사자의 75.0%가 아니오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공한 교육과정에 위기중재 과정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성별, 연령, 전공과정에 관계없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위기중재과정의 선택 이수 여부

위기중재과정의 선택 이수 여부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와 같다.

<표 3.3> 위기중재과정의 선택 이수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df	χ^2
성별	남	2(5.0)	38(95.0)	40(100)	1	.03
	여	3(5.9)	48(94.1)	51(100)		
연령	20대	1(3.6)	27(96.4)	28(100)	3	.63
	30대	2(6.5)	29(93.5)	31(100)		
	40대	2(7.1)	26(92.9)	28(100)		
	50대이상	·	4(100)	4(100)		
전공	특수교육	3(5.9)	48(94.1)	51(100)	3	7.73
	재활관련	·	20(100)	20(100)		
	사회복지	·	12(100)	12(100)		
	기타	2(25.0)	6(75.0)	8(100)		
계		5(5.5)	86(94.5)	91(100)		

위기중재과정의 선택이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94.51%가 선택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5.5%만이 위기중재과정을 선택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필수과목 여부에 대하여 남자가 95%, 여자가 94%로 아니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대 장애관련 종사자가 96.3%, 30대의 93.5%, 40대의 92.9%가 아니오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재활전공한 종사자의 100%, 특수교육전공자의 94.1%가 아니오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전공 교육과정에 위기중재과정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았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별에 관계없이 위기중재과정의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위기중재 과목의 구성

위기중재과목의 구성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위기중재과목의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61.5%가 기초적 강의형식을 취하고 38.5%가 강의와 실습병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위기중재 과목의 구성에 대하여 남자가 80%, 여자는 50%로 기초적 강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대의 경우는 강의와 실습병행하

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의 경우는 기초적 강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특수교육과 재활관련 종사자들의 66.7%가 기초적 강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를 전공한 종사자들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위기중재 과목의 구성

구 분		기초적 강의형식	강의와 실습병행	전 체(%)	df	χ^2
성별	남	4(80.0)	1(20.0)	5(100)	1	1.17
	여	4(50.0)	4(50.0)	8(100)		
연령	20대	1(33.3)	2(66.7)	3(100)	2	1.38
	30대	4(66.7)	2(33.3)	6(100)		
	40대	3(75.0)	1(25.0)	4(100)		
	50대이상	.	.	.		
전공	특수교육	4(66.7)	2(33.3)	6(100)	3	.32
	재활관련	2(66.7)	1(33.3)	3(100)		
	사회복지	1(50.0)	1(50.0)	2(100)		
	기타	1(50.0)	1(50.0)	2(100)		
계		8(61.5)	5(38.5)	13(100)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위기중재과목의 구성에서 실습을 병행하기 보다는 기초적 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와 40대의 경우보다 20대 종사자들의 경우에서 기초적 강의형태보다 실습이 병행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보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더욱 위기중재에 대한 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

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에 대한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90.3%가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9.7%만이 위기중재 훈련을 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에 대하여 남자의 58%, 여자의 92%로 아 니오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대 장애인 관련 종사자의 92.5%, 20대의 90.7%, 40대의 89.5%가 아니오 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재활전공한 종사자의 97.1%, 특수교육전 공자의 92%, 사회복지전공자의 79.2%가 아니오의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종사자들이 위기중재훈련 이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흡한 수준에서 훈련과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별에서, 특수학교의 88.9%, 장애인복지관의 92.3%, 장애인시설의 100%가 아니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 관계없이 장애관련종사자들은 위기훈련 이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중복장애(100%), 정신지체(93.6%), 정서장애(92.9%), 지체장애(91.3%), 시각장애(85.7%), 청각장애(75%) 순으로 아니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연령별로 보면, 7세이하(100%), 40세 이상(100%), 14-19세(91.8%), 20-40세(91.4%)의 순으로 아니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위기중재훈련의 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5> 위기중재 훈련 이수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df	χ^2
성별	남	8(12.1)	58(87.9)	66(100)	1	.74
	여	7(8.0)	81(92.0)	88(100)		
연령	20대	5(9.3)	49(90.7)	54(100)	3	1.92
	30대	4(7.5)	49(92.5)	53(100)		
	40대	4(10.5)	34(89.5)	38(100)		
	50대이상	2(22.2)	7(77.8)	9(100)		
전공	특수교육	7(8.0)	80(92.0)	87(100)	3	7.02
	재활관련	1(2.9)	33(97.1)	34(100)		
	사회복지	5(20.8)	19(79.2)	24(100)		
	기타	2(22.2)	7(77.8)	9(100)		
직장	특수학교	11(11.1)	88(88.9)	99(100)	2	.78
	장애인 관련복지관	4(7.7)	48(92.3)	52(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3(100)	3(100)		
장애유 형	정신지체	3(6.4)	44(93.6)	47(100)	6	8.66
	정서장애	3(7.1)	39(92.9)	42(100)		
	시각장애	1(14.3)	6(85.7)	7(100)		
	청각장애	6(25.0)	18(75.0)	24(100)		
	지체장애	2(8.7)	21(91.3)	23(100)		
	중복장애	·	8(100)	8(100)		
	기타	·	3(100)	3(100)		
장애학 생연령	7세이하	·	7(100)	7(100)	5	3.08
	8-13세	7(15.2)	39(84.8)	46(100)		
	14-19세	5(8.2)	56(91.8)	61(100)		
	20-40세	3(8.6)	32(91.4)	35(100)		
	40세 이상	·	5(100)	5(100)		
계	15(9.7)	139(90.3)	154(100)			

6) 위기중재 훈련 방법

위기중재 훈련 방법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6>와 같다.

<표 3.6> 위기중재 훈련 방법

구 분		연수	세미나 &특강	인터넷 원격교육	기타	전체(%)	df	χ^2
성별	남	5(62.5)	2(25.0)	·	1(12.5)	8(100)	3	4.82
	여	1(14.3)	3(42.9)	2(28.6)	1(14.3)	7(100)		
연령	20대	2(40.0)	1(20.0)	1(20.0)	1(20.0)	5(100)	9	3.58
	30대	1(20.0)	2(40.0)	1(20.0)	1(20.0)	5(100)		
	40대	2(66.7)	1(33.3)	·	·	3(100)		
	50대이상	1(50.0)	1(50.0)	·	·	2(100)		
전공	특수교육	4(66.7)	1(16.7)	·	1(16.7)	6(100)	9	9.65
	재활관련	·	1(100)	·	·	1(100)		
	사회복지	1(20.0)	2(40.0)	2(40.0)	·	5(100)		
	기타	1(33.3)	1(33.3)	·	1(33.3)	3(100)		
직장	특수학교	5(45.5)	3(27.3)	1(9.1)	2(18.2)	11(100)	3	2.04
	장애인 관련복지관	1(25.0)	2(50.0)	1(25.0)	·	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	·	·	·		
장애 유형	정신지체	1(33.3)	1(33.3)	1(33.3)	·	3(100)	12	8.40
	정서장애	1(33.3)	2(66.7)	·	·	3(100)		
	시각장애	1(100)	·	·	·	1(100)		
	청각장애	2(40.0)	2(40.0)	·	1(20.0)	5(100)		
	지체장애	1(33.3)	·	1(33.3)	1(33.3)	3(100)		
	중복장애	·	·	·	·	·		
	기타	·	·	·	·	·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	·	·	·	·	6	2.30
	8-13세	3(42.9)	2(28.6)	1(14.3)	1(14.3)	7(100)		
	14-19세	2(40.0)	2(40.0)	·	1(20.0)	5(100)		
	20-40세	1(33.3)	1(33.3)	1(33.3)	·	3(100)		
	40세이상	·	·	·	·	·		
계	6(40.0)	5(33.3)	2(13.3)	2(13.3)	15(100)			

위기중재 훈련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연수(40%), 세미나 및 특강(33.3%), 인터넷 원격교육 및 기타(각 13.3%) 순으로 나타나, 위기중재 훈련 방법으로 연수와 세미나 및 특강이 가장 많은 훈련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연수(62.5%), 여자의 경우 세미나 및 특강(42.9%)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연수(40%), 30대는 세미나 및 특강(40%), 40대는 연수(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연수(66.7%), 재활관련전공은 세미나 및 특강(100%), 사회복지 전공자는 세미나 및 특강 그리고

인터넷 원격교육(각 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별에서, 특수학교는 연수(45.5%), 장애인복지관은 세미나 및 특강(50%)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교는 주로 연수를 통하여 위기중재에 대한 방법을 훈련시키고 장애인복지관은 세미나 및 특강을 통해서 위기중재에 대한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에서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연수와 세미나 및 특강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연령별로 보면, 담당 장애인의 연령이 14-19세의 40%가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해 위기중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13세의 42.9%가 연수, 20-40세의 33.3%가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위기중재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위기상황 직면 빈도

위기상황 직면 빈도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7>와 같다.

위기상황 직면 빈도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주 1-2회(50.3%),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없다(25.8%), 매일 1회 이상(15.1%), 주 3-4회(8.8%) 순으로 나타나, 위기상황 직면 빈도는 주 1-2회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주 1-2회(55.25%), 여자의 경우도 46.7%로 주 1-2회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모두 주 1-2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특수교육, 재활관련전공,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 주 1-2회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별에서도 전공별과 마찬가지로 주 1-2회가 가장 많은 위기상황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유형별에서는 정신지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주 1-2회(65.3%)가 가장 나타났고, 정서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은 매일1회 이상(41.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전혀없다(각 57.1%, 4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기상황이 감각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보다 정서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체와 중복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주 1-2회(각 70.8%, 75.0%)가 가장 높게 나타나,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7528, p<.001$).

장애학생의 연령별로 보면, 7세 연령이 매일1회 이상(57.1%), 8-13세 연령이 주 1-2회(41.3%), 14-19세 연령이 주1-2회(56.3%), 20-40세 연령이 주 1-2회(63.9%), 40세 이상 연령에서는 전혀없다(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2.23, p<.01$).

<표 3.7> 위기상황 직면 빈도

구분	전혀없다	주1-2회	주3-4회	매일화상	전체(%)	df	χ^2	
성별	남	15(22.4)	37(55.2)	4(6.0)	11(16.4)	67(100)	3	2.26
	여	26(28.3)	43(46.7)	10(10.9)	13(14.1)	92(100)		
연령	20대	12(21.4)	29(51.8)	8(14.3)	7(12.5)	56(100)	9	11.04
	30대	16(29.1)	30(54.5)	3(5.5)	6(10.9)	55(100)		
	40대	11(28.9)	14(36.8)	3(7.9)	10(26.3)	38(100)		
	50대이상	2(20.0)	7(70.0)	·	1(10.0)	10(100)		
전공	특수교육	25(27.8)	41(45.6)	5(5.6)	19(21.1)	90(100)	9	15.57
	재활관련	5(14.3)	20(57.1)	5(14.3)	5(14.3)	35(100)		
	사회복지	8(32.0)	13(52.0)	4(16.0)	·	25(100)		
	기타	3(33.3)	6(66.7)	·	·	9(100)		
직장	특수학교	27(26.5)	49(48.0)	7(6.9)	19(18.6)	102(100)	6	4.81
	장애인 관련복지관	13(24.1)	29(53.7)	7(13.0)	5(9.3)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1(33.3)	2(66.7)	·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12(24.5)	32(65.3)	4(8.2)	1(2.0)	49(100)	18	75.28**
	정서장애	4(9.3)	11(25.6)	10(23.3)	18(41.9)	43(100)		
	시각장애	4(57.1)	2(28.6)	·	1(14.3)	7(100)		
	청각장애	11(44.0)	12(48.0)	·	2(8.0)	25(100)		
	지체장애	6(25.0)	17(70.8)	·	1(4.2)	24(100)		
	중복장애	1(12.5)	6(75.0)	·	1(12.5)	8(100)		
	기타	3(100)	·	·	·	3(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2(28.6)	·	1(14.3)	4(57.1)	7(100)	15	32.23**
	8-13세	16(34.8)	19(41.3)	4(8.7)	7(15.2)	46(100)		
	14-19세	12(18.8)	36(56.3)	4(6.3)	12(18.8)	64(100)		
	20-40세	7(19.4)	23(63.9)	5(13.9)	1(2.8)	36(100)		
	40세이상	4(66.7)	2(33.3)	·	·	6(100)		
계	41(25.8)	80(50.3)	14(8.8)	24(15.1)	159(100)			

p<.01, *p<.001

8) 위기직면 적절한 반응 대처

위기직면 적절한 반응 대처에 대한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8>와 같다.

위기직면 적절한 반응 대처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보통(5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끔(26.4%), 자주(11.3%), 전혀없다(9.4%) 순으로 나타나, 위기직면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서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은 보통수준에서 위기대처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보통의 수준으로 위기 직면에 대한 대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는 보통(각 66.1%), 40대는 가끔(44.7%) 위기 직면에 적절한 반응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9.14, p<.05). 전공별로 보면, 특수교육, 재활관련전공,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 보통 수준에서 위기직면에 적절한 반응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및 장애학생 연령별에서도 위기 직면에 적절한 반응 대처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8> 위기 직면 적절한 반응 대처

구 분		전혀없다	가끔	보통	자주	전체(%)	df	χ^2
성별	남	5(7.5)	20(29.9)	32(47.8)	10(14.9)	67(100)	3	2.88
	여	10(10.9)	22(23.9)	52(56.5)	8(8.7)	92(100)		
연령	20대	4(7.1)	9(16.1)	37(66.1)	6(10.7)	56(100)	9	19.14*
	30대	6(10.9)	11(20.0)	29(52.7)	9(16.4)	55(100)		
	40대	5(13.2)	17(44.7)	13(34.2)	3(7.9)	38(100)		
	50대이상	·	5(50.0)	5(50.0)	·	10(100)		
전공	특수교육	7(7.8)	30(33.3)	44(48.9)	9(10.0)	90(100)	9	14.68
	재활관련	2(5.7)	5(14.3)	22(62.9)	6(17.1)	35(100)		
	사회복지	4(16.0)	3(12.0)	16(64.0)	2(8.0)	25(100)		
	기타	2(22.2)	4(44.4)	2(22.2)	1(11.1)	9(100)		
직장	특수학교	9(8.8)	35(34.3)	48(47.1)	10(9.8)	102(100)	6	17.43**
	장애인 관련복지관	5(9.3)	5(9.3)	36(66.7)	8(14.8)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1(33.3)	2(66.7)	·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2(4.1)	13(25.6)	27(55.1)	7(14.3)	49(100)	18	20.09
	정서장애	1(2.3)	12(27.9)	24(55.8)	6(14.0)	43(100)		
	시각장애	1(14.3)	2(28.6)	3(42.9)	1(14.3)	7(100)		
	청각장애	5(20.0)	8(32.0)	8(32.0)	4(16.0)	25(100)		
	지체장애	4(16.7)	4(16.7)	16(66.7)	·	24(100)		
	중복장애	1(12.5)	2(25.0)	5(62.5)	·	8(100)		
	기타	1(33.3)	1(33.3)	1(33.3)	·	3(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1(14.3)	·	6(85.7)	·	7(100)	15	19.55
	8-13세	4(8.7)	18(39.1)	18(39.1)	6(13.0)	46(100)		
	14-19세	5(7.8)	18(28.1)	35(54.7)	6(9.4)	64(100)		
	20-40세	3(8.3)	5(13.9)	22(61.1)	6(16.7)	36(100)		
	40세이상	2(33.3)	1(16.7)	3(50.0)	·	6(100)		
계	15(9.4)	42(26.4)	84(52.8)	18(11.3)	159(100)			

*p<.05, **p<.01

9)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정도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정도에 대한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

구 분		전혀없다	가끔	보통	자주	전체(%)	df	χ^2
성별	남	8(11.9)	39(58.2)	16(23.9)	4(6.0)	67(100)	3	5.05
	여	24(26.1)	45(48.9)	17(18.5)	6(6.5)	92(100)		
연령	20대	16(28.6)	28(50.0)	8(14.3)	4(7.1)	56(100)	9	7.21
	30대	8(14.5)	29(52.7)	15(27.3)	3(5.5)	55(100)		
	40대	7(18.4)	20(52.6)	8(21.1)	3(7.9)	38(100)		
	50대이상	1(10.0)	7(70.0)	2(20.0)	·	10(100)		
전공	특수교육	13(14.4)	52(57.8)	20(22.2)	5(5.6)	90(100)	9	10.48
	재활관련	7(20.0)	17(48.6)	7(20.0)	4(11.4)	35(100)		
	사회복지	9(36.0)	12(48.0)	4(16.0)	·	25(100)		
	기타	3(33.3)	3(33.3)	2(22.2)	1(11.1)	9(100)		
직장	특수학교	16(15.7)	57(55.9)	22(21.6)	7(6.9)	102(100)	6	5.43
	장애인 관련복지관	16(29.6)	25(46.3)	10(18.5)	3(5.6)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2(66.7)	1(33.3)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9(18.4)	30(61.2)	8(16.3)	2(4.1)	49(100)	18	24.61
	정서장애	3(7.0)	21(48.8)	13(30.2)	6(14.0)	43(100)		
	시각장애	1(14.3)	5(71.4)	1(14.3)	·	7(100)		
	청각장애	10(40.0)	10(40.0)	4(16.0)	1(4.0)	25(100)		
	지체장애	4(16.7)	14(58.3)	5(20.8)	1(4.2)	24(100)		
	중복장애	4(50.0)	3(37.5)	1(12.5)	·	8(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1(14.3)	2(28.6)	2(28.6)	2(28.6)	7(100)	15	15.10
	8-13세	8(17.4)	26(56.5)	10(21.7)	2(4.3)	46(100)		
	14-19세	11(17.2)	36(56.3)	12(18.8)	5(7.8)	64(100)		
	20-40세	10(27.8)	18(50.0)	7(19.4)	1(2.8)	36(100)		
	40세이상	2(33.3)	2(33.3)	2(33.3)	·	6(100)		
계		32(20.1)	84(52.8)	33(20.8)	10(6.3)	159(100)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가끔(5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20.8%), 전혀없다(20.1%), 자주(6.3%)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는 보통이하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연령별로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는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은 위기 상황에 자주 부

덜치지만 아주 심각한 위협의 수준은 가끔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

위기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0>와 같다.

<표 3.10>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

구분		전혀없다	가끔	보통	자주	전체(%)	df	χ^2
성별	남	6(9.0)	49(73.1)	9(13.4)	3(4.5)	67(100)	3	9.38*
	여	16(17.4)	50(54.3)	25(27.2)	1(1.1)	92(100)		
연령	20대	9(16.1)	32(57.1)	14(25.0)	1(1.8)	56(100)	9	4.91
	30대	9(16.4)	33(60.0)	12(21.8)	1(1.8)	55(100)		
	40대	3(7.9)	27(71.1)	6(15.8)	2(5.3)	38(100)		
	50대이상	1(10.0)	7(70.0)	2(20.0)	·	10(100)		
전공	특수교육	13(14.4)	61(67.8)	14(15.6)	2(2.2)	90(100)	9	8.33
	재활관련	4(11.4)	18(51.4)	11(31.4)	2(5.7)	35(100)		
	사회복지	3(12.0)	16(64.0)	6(24.0)	·	25(100)		
	기타	2(22.2)	4(44.4)	3(33.3)	·	9(100)		
직장	특수학교	15(14.7)	67(65.9)	17(16.7)	3(2.9)	102(100)	6	4.31
	장애인 관련복지관	7(13.0)	30(55.6)	16(29.6)	1(1.9)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2(66.7)	1(33.3)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4(8.2)	35(71.4)	9(18.4)	1(2.0)	49(100)	18	31.01*
	정서장애	3(7.0)	21(48.8)	16(37.2)	3(7.0)	43(100)		
	시각장애	1(14.3)	5(71.4)	1(14.3)	·	7(100)		
	청각장애	8(32.0)	16(64.0)	1(4.0)	·	25(100)		
	지체장애	2(8.3)	17(70.8)	5(20.8)	·	24(100)		
	중복장애	3(37.5)	3(37.5)	2(25.0)	·	8(100)		
	기타	1(33.3)	2(66.7)	·	·	3(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1(14.3)	2(28.6)	4(57.1)	·	7(100)	15	22.14
	8-13세	9(19.6)	26(56.5)	11(23.9)	·	46(100)		
	14-19세	7(10.9)	47(73.4)	7(10.9)	3(4.7)	64(100)		
	20-40세	3(8.3)	20(55.6)	12(33.3)	1(2.8)	36(100)		
	40세이상	2(33.3)	4(66.7)	·	·	6(100)		
계		22(13.8)	99(62.3)	34(21.4)	4(2.5)	159(100)		

*p<.05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가끔(6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21.4%), 전혀없다(13.8%), 자주(2.5%) 순으로 나타나, 장애관련 종사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는

보통이하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장애학생들이 위협에 자주 부딪치지만 아주 심각한 위협의 수준은 가끔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별,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연령별로 위기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는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2. 장애 관련 종사자의 위기중재훈련의 필요성

1) 위기상황에서의 위기 중재 훈련 효과

위기상황에서 위기 중재 훈련 효과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1>와 같다.

<표 3.11> 위기상황에서의 위기 중재 훈련 효과

구 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df	X ²
성별	남	2(3.0)	24(35.8)	38(56.7)	3(4.5)	67(100)	3	.74
	여	2(2.2)	33(35.9)	50(54.3)	7(7.6)	92(100)		
연령	20대	1(1.8)	23(41.1)	30(53.6)	2(3.6)	56(100)	9	6.74
	30대	1(1.8)	18(32.7)	30(54.5)	6(10.9)	55(100)		
	40대	2(5.3)	11(28.9)	23(60.5)	2(5.3)	38(100)		
	50대이상	·	5(50.0)	5(50.0)	·	10(100)		
전공	특수교육	3(3.3)	30(33.3)	53(58.9)	4(4.4)	90(100)	9	10.15
	재활관련	·	15(42.9)	15(42.9)	5(14.3)	35(100)		
	사회복지	1(4.0)	7(28.0)	16(64.0)	1(4.0)	25(100)		
	기타	·	5(55.6)	4(44.4)	·	9(100)		
직장	특수학교	3(2.9)	38(37.3)	57(55.9)	4(3.9)	102(100)	6	4.74
	장애인 관련복지관	1(1.9)	17(31.5)	30(55.6)	6(11.1)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2(66.7)	1(33.3)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	19(38.8)	27(55.1)	6(6.1)	49(100)	18	14.62
	정서장애	2(4.7)	18(41.9)	19(44.2)	4(9.3)	43(100)		
	시각장애	·	2(28.6)	5(71.4)	·	7(100)		
	청각장애	2(8.0)	8(32.0)	13(52.0)	2(8.0)	25(100)		
	지체장애	·	8(33.3)	16(66.7)	·	24(100)		
	중복장애	·	2(25.0)	5(62.5)	1(12.5)	8(100)		
	기타	·	·	3(100)	·	3(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	·	4(57.1)	3(42.9)	7(100)	15	30.16
	8-13세	3(6.5)	16(34.8)	25(54.3)	2(4.3)	46(100)		
	14-19세	1(1.6)	26(40.6)	36(56.3)	1(1.6)	64(100)		
	20-40세	·	15(41.7)	18(50.0)	3(8.3)	36(100)		
	40세이상	·	·	5(83.3)	1(16.7)	6(100)		
계	4(2.5)	57(35.8)	88(55.3)	10(6.3)	159(100)			

위기상황에서 위기 중재훈련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그렇다(5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치 않다(35.8%), 매우그렇다(6.3%), 전혀그렇지않다(2.5%) 순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위기중재 훈련이 위기상황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우 그렇치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위기중재훈련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행동수준으로 위기중재훈련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별,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연령별로 위기상황에서 위기 중재훈련 효과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격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제공 필요성

자격과정에서 위기 중재과정 제공 필요성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자격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제공 필요성

구 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df	χ^2
성별	남	2(3.0)	4(6.0)	56(83.6)	5(7.5)	67(100)	3	7.78
	여	·	4(4.3)	69(75.0)	19(20.7)	92(100)		
연령	20대	·	2(3.6)	43(76.8)	11(19.6)	56(100)	9	654
	30대	1(1.8)	3(5.5)	42(76.4)	9(16.4)	55(100)		
	40대	1(2.6)	3(7.9)	32(84.2)	2(5.3)	38(100)		
	50대이상	·	·	8(80.0)	2(20.0)	10(100)		
전공	특수교육	2(2.2)	4(4.4)	74(82.2)	10(11.1)	90(100)	9	1822
	재활관련	·	2(5.7)	22(62.9)	11(31.4)	35(100)		
	사회복지	·	·	23(92.0)	2(8.0)	25(100)		
	기타	·	2(22.2)	6(66.7)	11(11.1)	9(100)		
직장	특수학교	2(2.0)	6(5.9)	84(82.4)	10(9.8)	102(100)	6	8.96
	장애인 관련복지관	·	2(3.7)	38(70.4)	14(25.9)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	3(100)	·	3(100)		
장애유형	정신지체	·	4(8.2)	38(77.6)	7(14.3)	49(100)	18	18.84
	정서장애	·	1(2.3)	32(74.2)	10(23.3)	43(100)		
	시각장애	·	1(14.3)	5(71.4)	1(14.3)	7(100)		
	청각장애	2(8.0)	1(4.0)	20(80.0)	2(8.0)	25(100)		
	지체장애	·	1(4.2)	21(87.5)	2(8.3)	24(100)		
	중복장애	·	·	7(87.5)	1(12.5)	8(100)		
	기타	·	·	2(66.7)	1(33.3)	3(100)		

구 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df	χ^2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	·	3(42.9)	4(57.1)	7(100)	15 14.25
	8-13세	1(2.2)	4(8.7)	37(80.4)	4(8.7)	46(100)	
	14-19세	1(1.6)	3(4.7)	51(79.7)	9(14.1)	64(100)	
	20-40세	·	1(2.8)	29(80.6)	6(16.7)	36(100)	
	40세이상	·	·	5(83.3)	1(16.7)	6(100)	
계	2(1.3)	8(5.0)	125(78.6)	24(15.1)	159(100)		

자격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그렇다(78.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그렇다(15.1%), 그렇지않다(5.0%), 전혀그렇지않다(1.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연령별로 위기상황에서 위기 중재훈련 효과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에서는 정서장애와 정신지체 담당 종사자들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담당 종사자들보다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자격과정에 위기 중재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부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

학부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3>와 같다.

학부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그렇다(68.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않다(22.0%), 매우그렇다(7.5%), 전혀그렇지않다(1.9%)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연령별로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에서는 정서장애와 정신지체 담당 종사자들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담당 종사자들보다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에 대해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학부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필수과목 선정 필요

구 분		전혀 그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df	χ^2
성별	남	2(3.0)	16(23.9)	44(65.7)	5(7.5)	67(100)	3	1.06
	여	1(1.1)	19(20.7)	65(70.7)	7(7.6)	92(100)		
연령	20대	1(1.8)	13(23.2)	38(67.9)	4(7.1)	56(100)	9	7.96
	30대	1(1.8)	10(18.2)	38(69.1)	6(10.9)	55(100)		
	40대	1(2.6)	11(28.9)	26(68.4)	·	38(100)		
	50대이상	·	·	8(80.0)	2(20.0)	10(100)		
전공	특수교육	2(2.2)	17(18.9)	65(72.2)	6(6.7)	90(100)	9	11.54
	재활관련	1(2.9)	7(20.0)	21(60.0)	6(17.1)	35(100)		
	사회복지	·	7(28.0)	18(72.0)	·	25(100)		
	기타	·	4(44.4)	5(55.6)	·	9(100)		
직장	특수학교	3(2.9)	22(21.6)	70(68.6)	7(6.9)	102(100)	6	2.36
	장애인 관련복지관	·	12(22.2)	37(68.5)	5(9.3)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	1(33.3)	2(66.7)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	13(26.5)	33(67.3)	3(6.1)	49(100)	18	26.22
	정서장애	·	8(18.6)	30(69.8)	5(11.6)	43(100)		
	시각장애	·	1(14.3)	5(71.4)	1(14.3)	7(100)		
	청각장애	3(12.0)	7(28.0)	12(48.0)	3(12.0)	25(100)		
	지체장애	·	3(12.5)	21(87.5)	·	24(100)		
	중복장애	·	2(25.0)	6(75.0)	·	8(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	1(14.3)	3(42.9)	3(42.9)	7(100)	15	17.79
	8-13세	1(2.2)	9(19.6)	35(76.1)	1(2.2)	46(100)		
	14-19세	2(3.1)	14(21.9)	43(67.2)	5(7.8)	64(100)		
	20-40세	·	10(27.8)	23(63.9)	3(8.3)	36(100)		
	40세이상	·	1(16.7)	5(83.3)	·	6(100)		
계		3(1.9)	35(22.0)	109(68.6)	12(7.5)	159(100)		

4) 학부학생들에게 유익한 위기 중재과정 형식

학부학생들에게 유익한 위기 중재과정 형식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4>와 같다.

학부학생들에게 유익한 위기 중재과정 형식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강의와 실습병행(7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적 실습형식(13.8%), 기초적강의형식(10.1%), 기타(1.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연령별로 학부학생들에게 유익한 위기 중재과정 형식에 대한 인식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의와 실습병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3.14> 학부 학생들에게 유익한 위기 중재과정 형식

구분		기초적 강의형식	기초적 실습형식	강의와 실습병행	기타	전체(%)	df	χ^2
성별	남	7(10.4)	12(17.9)	47(70.1)	1(1.5)	67(100)	3	1.79
	여	9(9.8)	10(10.9)	72(78.3)	1(1.1)	92(100)		
연령	20대	3(5.4)	6(10.7)	45(80.4)	2(3.6)	56(100)	9	11.05
	30대	5(9.1)	7(12.7)	43(78.2)	·	55(100)		
	40대	7(18.4)	6(15.8)	25(65.8)	·	38(100)		
	50대이상	1(10.0)	3(30.0)	6(60.0)	·	10(100)		
전공	특수교육	10(11.1)	15(16.7)	64(71.1)	1(1.1)	90(100)	9	4.39
	재활관련	3(8.6)	3(8.6)	28(80.0)	1(2.9)	35(100)		
	사회복지	2(8.0)	2(8.0)	21(84.0)	·	25(100)		
	기타	1(11.1)	2(22.2)	6(66.7)	·	9(100)		
직장	특수학교	12(11.8)	16(15.7)	72(70.6)	2(2.0)	102(100)	6	7.71
	장애인 관련복지관	3(5.6)	5(9.3)	46(85.2)	·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1(33.3)	1(33.3)	1(33.3)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5(10.2)	4(8.2)	39(79.6)	1(2.0)	49(100)	18	18.51
	정서장애	1(2.3)	11(25.6)	30(69.8)	1(2.3)	43(100)		
	시각장애	2(28.6)	·	5(71.4)	·	7(100)		
	청각장애	5(20.0)	3(12.0)	17(68.0)	·	25(100)		
	지체장애	2(8.3)	2(8.3)	20(83.3)	·	24(100)		
	중복장애	1(12.5)	2(25.0)	5(62.5)	·	8(100)		
	기타	·	·	3(100)	·	3(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	·	7(100)	·	7(100)	15	11.32
	8-13세	8(17.4)	6(13.0)	32(69.6)	·	46(100)		
	14-19세	4(6.3)	11(17.2)	47(73.4)	2(3.1)	64(100)		
	20-40세	4(11.1)	5(13.9)	27(75.0)	·	36(100)		
	40세이상	·	·	6(100)	·	6(100)		
계	16(10.1)	22(13.8)	119(74.8)	2(1.3)	159(100)			

5) 대학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 제공 방법

대학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 제공 방법에 대한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5>와 같다.

대학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 제공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은 연수(49.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미나 특강(41.5%), 인터넷 원격교육(4.97%), 기타(3.93%)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중재훈련 과정 방법으로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은 연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별, 전공별, 직장별,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연령별로 대학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 제공 방법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별에서는 특수교육전공자의 62.5%, 재활관련전공자의 60.0%가 연수를 통해서, 사회복지전공자의 60.0%는 세미나나 특강을 통해 위기중재훈련 과정을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F=19.20, p<.05).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지체 담당 종사자들의 53.1%와, 정서장애 담당 종사자들의 72.1% 그리고 시각장애 담당 종사자들의 71.4%가 대학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에서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44.13, p<.1%).

<표 3.15> 대학 졸업 후 위기중재훈련 과정 제공 방법

구 분		연수	세미나 & 특강	인터넷 원격교육	기타	전체(%)	df	χ^2
성별	남	40(59.7)	23(34.3)	4(6.0)	·	67(100)	3	3.69
	여	45(48.9)	39(42.4)	5(5.4)	3(3.3)	92(100)		
연령	20대	25(44.6)	25(44.6)	5(8.9)	1(1.8)	56(100)	9	8.01
	30대	30(54.5)	23(41.8)	1(1.8)	1(1.8)	55(100)		
	40대	22(57.9)	12(31.6)	3(7.9)	1(2.6)	38(100)		
	50대이상	8(80.0)	2(20.0)	·	·	10(100)		
전공	특수교육	56(62.2)	28(31.1)	4(4.4)	2(2.2)	90(100)	9	19.20*
	재활관련	21(60.0)	12(34.3)	2(5.7)	·	35(100)		
	사회복지	6(24.0)	15(60.0)	3(12.0)	1(4.0)	25(100)		
	기타	2(22.2)	7(77.8)	·	·	9(100)		
직장	특수학교	60(58.8)	36(35.3)	5(4.9)	1(1.0)	102(100)	6	4.97
	장애인 관련복지관	23(42.6)	25(46.3)	4(7.4)	2(3.7)	54(100)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2(66.7)	1(33.3)	·	·	3(100)		
장애 유형	정신지체	26(53.1)	21(42.9)	2(4.1)	·	49(100)	18	44.13**
	정서장애	31(72.1)	9(20.9)	2(4.7)	1(2.3)	43(100)		
	시각장애	5(71.4)	·	1(14.3)	1(14.3)	7(100)		
	청각장애	9(36.0)	13(52.0)	3(12.0)	·	25(100)		
	지체장애	11(45.8)	12(50.0)	1(4.2)	·	24(100)		
	중복장애	3(37.5)	5(62.5)	·	·	8(100)		
	기타	·	2(66.7)	·	1(33.3)	3(100)		
장애 학생 연령	7세이하	4(57.1)	3(42.9)	·	·	7(100)	15	16.77
	8-13세	26(56.5)	16(34.8)	3(6.5)	1(2.2)	46(100)		
	14-19세	36(56.3)	26(40.6)	2(3.1)	·	64(100)		
	20-40세	17(47.2)	14(38.9)	4(11.1)	1(2.8)	36(100)		
	40세이상	2 (33.3)	3(50.0)	·	1(16.7)	6(100)		
계	16(10.1)	22(13.8)	119(74.8)	2(1.3)	159(100)			

*p<.05, **p<.01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위기중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장애관련 종사자의 위기중재훈련의 실태에서는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전공과정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기중재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하더라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전공교육과정에 위기중재과정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많은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위기중재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기중재 과목의 구성은 실습을 병행하기보다 기초적 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현재 위기중재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고, 극히 일부 위기중재 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받은 종사자들은 연수와 세미나 특강을 활용하여 훈련을 받았고, 인터넷 원격교육도 다소 활용하는 편이다.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주 한 두 번 이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에서 특히 감각장애를 담당하는 기관과는 달리 정서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은 매일 일회 이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감각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보다 정서장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위기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위기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보통수준에서 위기직면에 대해 적절한 반응 대처양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빈도는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위기 상황에 자주 부딪치지만 아주 심각한 위협의 수준은 가끔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위협에 빠지는 빈도는 가끔 정도이고 이는 장애학생들이 위협에 자주 부딪치지만 아주 심각한 위협의 수준은 가끔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관련 종사자의 위기중재훈련의 필요성에서는 대부분의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위기중재 훈련의 효과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위기중재훈련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행동수정의 범위로 위기중재훈련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자격과정에 위기 중재과정 제공의 필요성과 필수과목 선정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생각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장애관련 종사자들은 학생부들에게 유익한 위기중재과정 형식으로 강의와 실습병행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위기중재 훈련 과정 제공 방법으로는 연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위기중재 훈련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그 표집이 적기 때문에 특수학교, 재활기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 따른 표집수를 늘여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폭력 위기중재 훈련의 실시여부와 교육과정 개설의 현실화는 장애관련 종사자의 필요 인식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와 전문가에 의해 크게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폭력 위기중재 훈련 및 연수 내용에 대한 장애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Aguilera, D.C.(1997). *Crisis intervention: Theory and methodology(8th ed.)* St.Louis, MO:C.V.Mosby.
- Allen, M., Jerome, A., White, A., Marston, S., Lamb, S., Pope, D., & Rawlins, C.(2002). The prepar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for crisis interven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39(4). p. 427-439.
- Bronfenbrenner, U.(1995). Developmental ecology through space and time: A future perspective. In P. Moen, G.H Elder., Jr., & K. Luscher(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pp.619-64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programs.(2000). *CACREP Accreditation Manual of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Programs(1st ed)*.Alexandria, VA: CACREP.
- Daniels, J. A.(2002). Assessing threats of school vioence:Implications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215-218
- Hendin, H., Maltsberger, J. T., Lipschitz, A., Haas, A., & Kyle,J.(2001).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a suicide crisi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13, p. 115-127.
- Intervention Center. (n.d.) *Intervention Training*. Retrieved February 8, 2004 from <http://www.intervention.com/servspt.html>
- Moyers, F.(1996). Oklahoma City bombing: Exacerbation of symptoms in veterans with PTSD.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 55-59
- Peter, E. D., Kochanek, K. D., & Murphs, S. L.(1998). *Deaths: Final data for 1996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47(9)(DHHS Publication No.(PHS)99-1120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Post Trauma Resources.(n.d). *Training and Seminars*. Retrived February 8, 2004, from <http://www.posttrauma.com>
- Ren, C.H. (2000).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dynamics of linked crisis events. di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9 (I), 12-17.
- Roberts, A.R. (2000). *Crisis intervention handbook: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 Watkins, M.W., Crosby, EG., & Pearson,J.L.(2001). *Role of the school psychologis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 (I), 64-73.

A Survey on Recognition of Disabilities-related Staffs on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Rhee, Gun Yong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 out level of recognition of disabilities-related staff on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The subject of this study employed staffs who occupied in special schools, rehabilitation center and social welfare center for individuals for disabilities. The 180 of questionnaire were posted to them. The process of data adapted to Chi test using Likert 5 scales.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results and discussion was as follow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ere no curriculum for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in their course work but a little them. They have needs to set up curriculum for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Now, they have not any received training for it. Also, they would like to take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through study and training and seminar.

To realize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based on positive recognition, it should need to specific approach extending sampling.

Key Words: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problem behavior, rehabilitation,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07. 11. 5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17